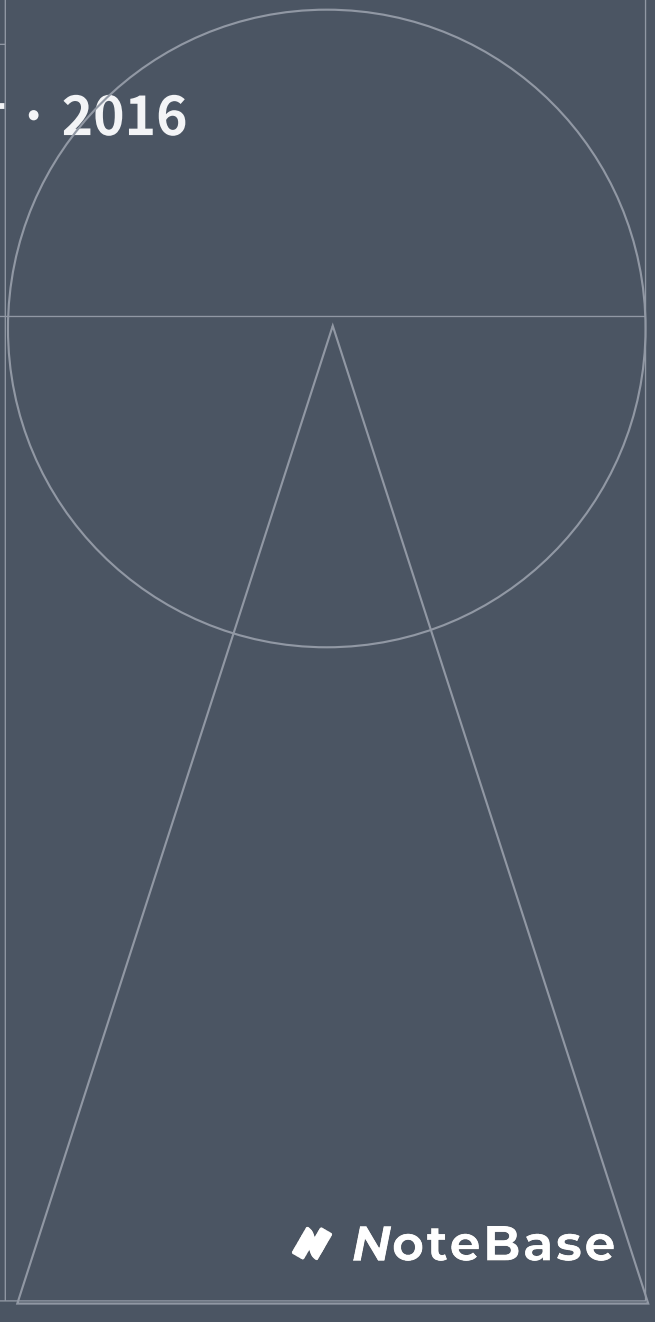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경제학 · 2016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경제학 · 2016

공무원/국가직/7급 · 경제학 · 2016

문 1. 케인즈의 화폐수요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인은 수익성 자산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화폐를 보유하기도 한다.

②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0이 되는 것을 유동성 함정이라고 한다.

③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예비적 동기의 화폐수요는 증가한다.

④ 거래적 동기의 화폐수요는 소득수준과 관련이 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케인즈의 화폐수요 동기와 유동성 함정의 의미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거래적 동기의 화폐수요는 일상적인 거래를 위해 보유하는 화폐로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증가한다.
예비적 동기의 화폐수요는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해 보유하는 화폐로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증가한다.
투기적 동기의 화폐수요는 이자율과 채권가격 전망에 따라 수익성 자산 대신 화폐를 보유하는 것이다.
유동성 함정은 이자율이 매우 낮아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매우 커지는 상태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수익성 자산에 바로 투자하지 않고 화폐를 잠시 보유하는 행태는 투기적 동기의 설명으로 볼 수 있다. 이자율이나 자산가격 전망에 따라 채권 등 수익성 자산 대신 화폐를 보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옳다.
② X: 틀린 부분은 "이자율 탄력성이 0"이다. 유동성 함정은 이자율이 매우 낮아 사람들이 채권보다 화폐를 선호하여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매우 커지거나 무한대에 가까워지는 상태이다. 따라서 올바르게는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매우 커지는 것을 유동성 함정이라고 한다"이다.
③ O: 예비적 동기의 화폐수요는 돌발적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므로 소득이 커질수록 보유하려는 화폐도 늘어난다.
④ O: 거래적 동기의 화폐수요는 상품과 서비스 거래를 위한 것이므로 거래 규모를 반영하는 소득수준과 관련이 있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의 "이자율 탄력성이 0"이라는 표현이 함정이다. 거래적·예비적 화폐수요는 주로 소득과 연결되고, 유동성 함정은 투기적 화폐수요가 이자율에 극단적으로 민감해지는 상황이라는 점을 섞어 두면 오답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화폐수요 동기가 나오면 먼저 소득과 연결되는지, 이자율과 연결되는지를 구분하면 된다. 거래적·예비적 동기는 소득, 투기적 동기는 이자율로 판단하고, 유동성 함정은 이자율 탄력성이 0이 아니라 매우 큰 상태로 정리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거래·예비는 소득, 투기는 이자율, 유동성 함정은 이자율 탄력성 매우 큼으로 묶인다.

NoteBase

문 2. 재화 A에 대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은 각각 $Q_d = 12 - P$ 및 $Q_s = 2P$로 표현된다. 이 재화에 개당 3원의 세금을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경우에 경제적 순손실의 크기는? (단, Q_d는 수요량, Q_s는 공급량, P는 가격이다)

① 1원

② 3원

③ 5원

④ 7원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에 단위세가 부과될 때 거래량 감소분을 구하고, 그 감소분으로 경제적 순손실을 삼각형 면적으로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수요곡선은 $Q_d = 12 - P$, 공급곡선은 $Q_s = 2P$이다.
구해야 할 값: 소비자에게 3원의 세금을 부과했을 때의 경제적 순손실이다.
주의할 조건: 경제적 순손실은 조세수입이 아니라 세금 때문에 사라진 거래에서 생기는 잉여 손실이다.

사용할 공식

단위세에 따른 경제적 순손실은 다음과 같다.
$DWL = \frac{1}{2} \times t \times (Q^* - Q_t)$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단위세가 소비자가격과 생산자가격 사이에 쐐기를 만들어 거래량을 Q^*에서 Q_t로 줄이고, 그 줄어든 거래 부분의 잉여 손실이 삼각형 면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세금이 없을 때 균형은 $12 - P = 2P$이므로 $P^* = 4$, $Q^* = 8$이다.
2. 소비자가격을 P_c, 생산자가격을 P_p라 하면 소비자세 3원 때문에 $P_c = P_p + 3$이다.
3. 공급곡선은 생산자가격 기준이므로 $Q_s = 2P_p = 2(P_c - 3)$이고, 새로운 균형은 $12 - P_c = 2(P_c - 3)$이다.
4. 이를 풀면 $12 - P_c = 2P_c - 6$, 즉 $18 = 3P_c$이므로 $P_c = 6$, $P_p = 3$, $Q_t = 6$이다.
5. 거래량 감소분은 $Q^* - Q_t = 8 - 6 = 2$이므로 경제적 순손실은 $\frac{1}{2} \times 3 \times 2 = 3$원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1원은 거래량 감소분이나 삼각형 면적 계산을 잘못 잡은 값이다. 이 문항의 경제적 순손실은 1원이 아니라 3원이다.
② O: 세후 거래량이 6으로 줄어 거래량 감소분이 2가 되고, 단위세가 3원이므로 $DWL = \frac{1}{2} \times 3 \times 2 = 3$원이다.
③ X: 5원은 세금과 거래량 감소를 단순히 섞어 계산한 값에 가깝다. 경제적 순손실은 5원이 아니라 3원이다.
④ X: 7원은 세금부담, 가격변화, 조세수입 등을 경제적 순손실과 혼동한 값이다. 순손실은 사라진 거래 2단위에서 생기는 삼각형 면적이므로 7원이 아니라 3원이다.

오답 포인트

보기 ①③④처럼 숫자만 제시되면 조세수입과 경제적 순손실을 혼동하기 쉽다. 이 문제에서 조세수입은 $3 \times 6 = 18$원이지만, 경제적 순손실은 그 전체가 아니라 거래량이 2만큼 줄어 생긴 삼각형 면적 3원이다. 삼각형 면적에서 $\frac{1}{2}$를 빼먹는 실수도 자주 나온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단위세 계산형은 먼저 무세금 균형 (P^*, Q^*)을 구하고, 다음으로 세후 균형거래량 Q_t를 구한 뒤, 마지막에 (1)/(2)× 세금 × 거래량 감소분으로 경제적 순손실을 계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단위세의 경제적 순손실은 (1)/(2)× 세금 × 거래량 감소분이다.

NoteBase

문 3. 명목이자율이 15%이고 예상 인플레이션율은 5%이다. 이자소득에 대해 20%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된다면 세후 실질이자율은?

① 3%

② 5%

③ 7%

④ 9%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이자소득세를 반영한 세후 명목이자율을 먼저 구한 뒤, 기대인플레이션율을 차감하여 세후 실질이자율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명목이자율 15%, 예상 인플레이션율 5%, 이자소득세율 20%
구해야 할 값: 세후 실질이자율
주의할 조건: 세금은 이자소득인 명목이자에 부과되므로 세후 명목이자율을 먼저 계산한 뒤 기대인플레이션율을 뺀다.

사용할 공식

세후 명목이자율은 $15\% \times (1 - 0.2) = 12\%$이다.
세후 실질이자율은 근사적으로 세후 명목이자율 - 예상 인플레이션율이므로 $12\% - 5\% = 7\%$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 문제는 세금과 기대인플레이션을 모두 반영한 구매력 기준 수익률을 묻고 있으므로, 먼저 세후 명목수익률을 구하고 그다음 물가상승분을 차감해야 한다.

계산 과정

1. 명목이자율 15%에 세율 20%를 적용하면 세금은 $15\% \times 0.2 = 3\%$p이다.
2. 따라서 세후 명목이자율은 $15\% - 3\% = 12\%$이다.
3. 여기서 예상 인플레이션율 5%를 빼면 세후 실질이자율은 $12\% - 5\% = 7\%$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3%는 명목이자율 15%에 대한 세금분 3%p만 계산한 값이어서 실질이자율이 아니다. 틀린 값 3% → 올바르게는 세후 명목이자율 12%에서 예상 인플레이션율 5%를 차감한 7%이다.

② X
5%는 세금과 인플레이션을 모두 반영한 결과가 아니다. 틀린 값 5% → 올바르게는 세후 명목이자율 12%를 먼저 구한 뒤 5%를 빼서 7%로 계산한다.

③ O
세후 명목이자율이 12%이고, 여기서 예상 인플레이션율 5%를 차감하면 7%가 된다. 따라서 세후 실질이자율은 7%이므로 정답이다.

④ X
9%는 세후 명목이자율 12%에서 물가상승분을 충분히 차감하지 않았거나 계산 순서를 잘못 잡은 값이다. 틀린 값 9% → 올바르게는 세후 명목이자율 12%에서 예상 인플레이션율 5%를 차감한 7%이다.

오답 포인트

세금을 실질이자율에 직접 적용하거나, 세금과 인플레이션 중 하나만 반영하는 실수가 자주 나온다. 이 문항의 함정은 세금이 명목이자에 먼저 부과된다는 점을 놓치게 만드는 데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세후 실질수익률 문제는 명목이자율에서 세금을 먼저 반영해 세후 명목이자율을 구하고, 그다음 기대인플레이션율을 차감하는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세후 실질이자율은 세후 명목이자율에서 기대인플레이션율을 뺀 값이다.

NoteBase

문 4.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운 소국 개방경제를 가정하자. 먼델-플레밍의 IS-LM-BP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BP곡선은 (산출, 이자율) 평면에서 수평선으로 나타난다.

② 고정환율제하에서 통화정책은 국민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③ 변동환율제하에서는 통화정책의 독자성이 보장된다.

④ 재정정책의 국민소득에 대한 효과는 고정환율제보다 변동환율제하에서 더 커진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완전 자본이동이 가능한 먼델-플레밍 모형에서 고정환율제와 변동환율제 아래 재정정책·통화정책의 효과 차이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BP곡선은 국제수지가 균형인 산출과 이자율의 조합을 뜻한다. 완전 자본이동의 소국 개방경제에서는 국내이자율이 세계이자율과 다르면 즉시 자본이동이 일어나므로 BP곡선은 $i = i^*$에서 수평이 된다.
고정환율제는 환율 방어를 위해 통화량이 외환시장 개입에 종속되는 체제이므로 통화정책 효과가 약하다.
변동환율제는 환율이 조정되므로 통화정책의 독자성이 크고, 재정정책은 환율절상을 통해 효과가 약해진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BP곡선은 국제수지 균형선이다. 완전 자본이동에서는 국내이자율이 세계이자율보다 조금만 높거나 낮아도 대규모 자본유입·유출이 발생하므로 (산출, 이자율) 평면에서 BP곡선은 수평선으로 나타난다.

② O
고정환율제에서 통화팽창을 시도하면 자본유출과 환율하락 압력이 생긴다. 중앙은행이 환율을 유지하려고 외환시장에 개입하면서 통화량 증가가 상쇄되므로 국민소득에 대한 통화정책 효과를 유지하기 어렵다.

③ O
변동환율제에서는 환율이 조정변수이므로 중앙은행이 고정환율 방어를 위해 통화량을 되돌릴 필요가 없다. 따라서 통화정책의 독자성이 보장된다고 본다.

④ X
틀린 부분은 "고정환율제보다 변동환율제에서 더 커진다"이다. 실제로는 재정정책의 국민소득 효과가 고정환율제에서 더 크고, 변동환율제에서는 재정확대가 이자율 상승과 통화절상을 불러 순수출을 줄이므로 효과가 약해진다.

오답 포인트

③이 맞다는 점만 기억하고 ④도 같은 방향으로 판단하면 틀리기 쉽다. 완전 자본이동에서는 변동환율제에서 통화정책이 강하고 고정환율제에서 재정정책이 강하다는 대칭 구조를 함께 기억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환율제도를 확인한 뒤 고정환율제이면 재정정책 유효·통화정책 무효, 변동환율제이면 통화정책 유효·재정정책 약효라는 기준으로 대입하면 선지 판단이 정리된다.

암기 포인트

완전 자본이동에서는 BP 수평, 고정환율은 재정정책 강효, 변동환율은 통화정책 강효가 성립한다.

NoteBase

문 5. 총수요(AD)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물가가 하락하는 경우 실질임금이 상승하여 노동공급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② 물가가 하락하는 경우 실질통화량이 증가하여 이자율이 하락하고 투자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③ 물가가 하락하는 경우 실질환율 상승, 즉 절하가 생겨나 순수출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④ 물가가 하락하는 경우 가계의 실질자산가치가 증가하여 소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총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를 실질자산효과, 이자율효과, 환율효과로 구분하고 노동시장 논리와 혼동하지 않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총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는 물가 하락이 실질자산가치를 높여 소비를 늘리는 실질자산효과, 실질통화량을 늘려 이자율을 낮추고 투자를 늘리는 이자율효과, 자국 재화의 상대가격을 낮춰 순수출을 늘리는 환율효과에 있다. 노동공급이나 노동수요 변화는 총수요 우하향의 근거가 아니라 노동시장 또는 총공급 측 설명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표현은 '실질임금이 상승하여 노동공급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는 노동시장 쪽 설명이지 총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가 아니다. 올바르게는 물가 하락이 실질자산효과, 이자율효과, 환율효과를 통해 소비·투자·순수출을 늘려 총수요를 증가시킨다고 보아야 한다.
② O: 물가가 하락하면 명목통화량이 같아도 실질통화량이 증가한다. 그 결과 이자율이 하락하고 투자지출이 늘어나므로 총수요가 증가한다. 이는 총수요 우하향의 이자율효과를 설명한 선지이다.
③ O: 이 선지는 물가 하락이 자국 재화의 가격경쟁력을 높여 순수출을 늘린다는 환율효과를 설명한다. 자국 재화가 상대적으로 싸지면 수출이 늘고 수입이 줄어 총수요가 증가한다.
④ O: 물가가 하락하면 가계가 보유한 화폐나 금융자산의 실질구매력이 커진다. 그 결과 소비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총수요가 늘어난다. 이는 실질자산효과를 설명한 선지이다.

오답 포인트

①은 '실질임금'과 '노동공급'이라는 말을 넣어 총수요와 총공급을 섞어 놓은 함정이다. 총수요 우하향 이유를 묻는 문제에서 노동시장, 임금, 생산비가 나오면 먼저 총공급 논리인지 의심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물가 하락의 효과가 소비 증가, 투자 증가, 순수출 증가로 이어지면 총수요 우하향 근거이다. 반대로 노동공급, 노동수요, 생산비, 기업의 생산량 조정으로 이어지면 총공급 또는 노동시장 설명으로 분리해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AD 우하향은 부의 효과, 이자율효과, 순수출효과이고 노동공급 변화는 AD가 아니라 AS 쪽 개념이다.

NoteBase

문 6. 필립스곡선(Phillips curv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50년대 말 필립스(A. W. Phillips)는 영국의 실업률과 명목임금 상승률 사이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찾아냈다.

② 총공급곡선은 물가와 산출 분석에, 필립스곡선은 인플레이션과 실업 분석에 적절하다.

③ 이력현상(hysteresis)이 존재할 경우 거시경제정책은 장기적으로도 실업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④ 디스인플레이션 정책에 따른 희생률은 적응적 기대보다 합리적 기대에서 작게 나타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필립스곡선의 원래 의미, 총공급곡선과의 역할 차이, 이력현상, 기대형성에 따른 디스인플레이션 비용의 차이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필립스곡선은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틀이다. 원래 필립스는 실업률과 명목임금상승률 사이의 음(-)의 관계를 제시하였다.
총공급곡선은 물가와 산출의 관계를 본다. 따라서 총공급곡선과 필립스곡선은 연결되지만 분석 대상 축이 다르다.
이력현상은 경기침체가 지나간 뒤에도 실업의 상처가 남아 자연실업률 자체가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다.
합리적 기대에서는 정책 변화가 신속히 기대에 반영되므로 적응적 기대보다 디스인플레이션의 산출 손실과 희생률이 더 작게 나타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X. 필립스가 찾아낸 것은 영국 자료에서 실업률과 명목임금상승률 사이의 음(-)의 상관관계이다. 틀린 표현은 '양(+)'이다. 올바르게는 '실업률이 낮을수록 명목임금상승률이 높아지는 음(-)의 관계'이다.
② O. 총공급곡선은 물가와 산출의 관계를 분석하고, 필립스곡선은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관계를 분석한다. 둘 다 단기 거시분석의 핵심 도구이지만 설명하는 변수 조합이 다르므로 진술이 맞다.
③ O. 이력현상이 있으면 경기침체가 장기 실업을 남겨 자연실업률까지 바꿀 수 있다. 따라서 단기 수요정책의 효과가 장기 실업률에도 흔적을 남길 수 있으므로 진술이 맞다.
④ O. 적응적 기대에서는 사람들이 과거 물가상승률을 뒤늦게 반영하므로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에서 실업 증가와 산출 감소가 크게 나타나기 쉽다. 반면 합리적 기대에서는 정책의 신뢰성이 높을 때 기대 인플레이션이 더 빨리 낮아져 희생률이 더 작아질 수 있으므로 진술이 맞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필립스곡선을 '실업률과 임금상승률의 관계'로만 외우고 부호를 놓치면 ①에 속기 쉽다. 또 총공급곡선과 필립스곡선이 모두 단기 거시분석 도구라는 공통점 때문에 분석 변수 축이 다르다는 점을 흐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필립스곡선 문제는 먼저 관계의 두 축이 무엇인지 확인한다. 원래 필립스는 '실업률-명목임금상승률', 현대 필립스곡선은 '인플레이션-실업'이다. 그다음 기대형성 모형과 이력현상처럼 장단기 효과를 바꾸는 조건이 붙었는지 확인하면 선지를 빠르게 가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필립스 원형은 실업률과 명목임금상승률의 음(-)의 관계, 합리적 기대일수록 디스인플레이션 희생률은 작아질 수 있다.

NoteBase

문 7. 숙련노동자가 비숙련노동자에 비해 풍부한 A국과 비숙련노동자가 숙련노동자에 비해 풍부한 B국이 있다. 폐쇄경제를 유지하던 두 나라가 무역을 개시하여 A국은 B국에 숙련노동집약적인 재화를 수출하고, B국으로부터 비숙련노동집약적인 재화를 수입한다고 가정하자. 헥셔-올린 모형의 예측에 따라 이러한 무역 형태가 A국과 B국의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두 나라 모두 숙련노동자의 임금이 비숙련노동자의 임금에 비해 높다)

① A국의 숙련노동자와 비숙련노동자의 임금격차가 확대될 것이다.

② B국의 숙련노동자와 비숙련노동자의 임금격차가 확대될 것이다.

③ A국 비숙련노동자의 교육 투자를 통한 숙련노동자로의 전환 인센티브가 감소한다.

④ B국 비숙련노동자의 교육 투자를 통한 숙련노동자로의 전환 인센티브가 증가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헥셔-올린 모형과 스톨퍼-새뮤얼슨 정리를 연결하여 무역 개방이 각국의 숙련·비숙련 노동 임금격차와 교육 유인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사례 정리

A국은 숙련노동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나라이다.
B국은 비숙련노동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나라이다.
무역 개방 후 A국은 숙련노동집약재를 수출하고, B국은 비숙련노동집약재를 수출하는 구조가 된다.
두 나라 모두 숙련노동 임금이 비숙련노동 임금보다 높다는 조건이 제시되어 있다.

핵심 개념

헥셔-올린 모형은 각국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생산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재화를 수출한다고 본다.
스톨퍼-새뮤얼슨 정리는 무역이 개방되면 수출재에 집약적으로 투입되는 풍부한 요소의 실질보수는 상승하고, 상대적으로 희소한 요소의 실질보수는 하락한다고 본다.
따라서 숙련노동 풍부국에서는 숙련노동의 상대임금이 오르고, 비숙련노동 풍부국에서는 비숙련노동의 상대임금이 오른다.

적용 기준

이 사례에서는 각 나라의 풍부한 요소가 무엇인지 먼저 본 뒤, 무역 개방으로 그 요소의 상대보수가 상승하는지를 판단하면 된다.
핵심은 A국에서는 숙련노동 임금 프리미엄이 커지고, B국에서는 비숙련노동 임금이 상대적으로 올라 숙련 프리미엄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A국은 숙련노동이 풍부하므로 무역 개방 후 숙련노동집약재를 수출하게 된다. 그 결과 A국에서는 숙련노동의 상대임금이 상승하고 비숙련노동의 상대임금은 하락하므로 숙련노동자와 비숙련노동자의 임금격차가 확대된다.

② X
B국은 비숙련노동이 풍부하므로 무역 개방 후 비숙련노동집약재를 수출하게 된다. 그 결과 B국에서는 비숙련노동의 상대임금이 상승하고 숙련노동의 상대임금은 하락하므로 임금격차는 확대가 아니라 축소된다.
틀린 표현은 '임금격차가 확대될 것이다'이다. 올바르게는 'B국의 숙련노동자와 비숙련노동자의 임금격차가 축소될 것이다'이다.

③ X
A국에서는 무역 개방 후 숙련노동의 상대임금이 더 올라간다. 따라서 비숙련노동자가 교육투자를 통해 숙련노동자로 전환할 때 기대할 수 있는 임금 프리미엄이 커지므로 전환 인센티브는 감소가 아니라 증가한다.
틀린 표현은 '인센티브가 감소한다'이다. 올바르게는 'A국 비숙련노동자의 숙련노동자로의 전환 인센티브가 증가한다'이다.

④ X
B국에서는 비숙련노동의 상대임금이 상승하므로 숙련노동과 비숙련노동 사이의 임금 프리미엄이 줄어든다. 따라서 비숙련노동자가 교육투자를 통해 숙련노동자로 전환하려는 유인은 증가가 아니라 감소한다.
틀린 표현은 '인센티브가 증가한다'이다. 올바르게는 'B국 비숙련노동자의 숙련노동자로의 전환 인센티브가 감소한다'이다.

오답 포인트

②와 ④는 '숙련노동의 임금이 원래 더 높다'는 문장에만 끌리면 틀리기 쉽다. 이 문제는 절대수준이 아니라 무역 개방 뒤 상대임금이 어느 방향으로 변하는지를 묻는다. ③도 A국이 숙련노동 풍부국이라는 점을 놓치면 교육 유인이 줄어든다고 오해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무역과 요소보수 문제는 '풍부한 요소 확인 → 그 요소를 집약적으로 쓰는 재화가 수출재가 됨 → 그 요소의 상대보수 상승'의 순서로 판단하면 된다. 그다음 임금 프리미엄이 커지면 숙련 전환 유인은 커지고, 임금 프리미엄이 작아지면 숙련 전환 유인은 작아진다고 연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무역 개방은 풍부한 요소의 보수를 올리고 희소한 요소의 보수를 내린다. 숙련 풍부국은 숙련 프리미엄 확대, 비숙련 풍부국은 숙련 프리미엄 축소이다.

NoteBase

문 8. 100개의 기업들이 완전경쟁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 개별기업의 총비용함수와 외부비용은 각각 $C = Q^2 + 4Q$와 $EC = Q^2 + Q$로 동일하다. 이 재화에 대한 시장수요곡선이 $Q_d = 1{,}000 - 100P$로 표현될 때, 사회적으로 최적인 생산량과 외부비용을 고려하지 않는 균형생산량 간의 차이는? (단, C는 각 기업의 총비용, Q는 각 기업의 생산량, EC는 각 기업의 생산에 따른 외부비용, Q_d는 시장수요량, P는 가격이다)

① 50

② 100

③ 150

④ 20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완전경쟁시장에서 외부비용을 무시한 시장균형 생산량과 한계외부비용을 반영한 사회적 최적 생산량을 각각 구해 그 차이를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 기업 수: 100개
- 각 기업의 총비용: $C = Q^2 + 4Q$
- 각 기업의 외부비용: $EC = Q^2 + Q$
- 시장수요: $Q_d = 1000 - 100P$
- 구해야 할 값: 사회적 최적 총생산량과 외부비용을 고려하지 않는 균형 총생산량의 차이

사용할 공식

민간 한계비용은 총비용을 미분하여 $MC = 2Q + 4$이다.
한계외부비용은 외부비용을 미분하여 $MEC = 2Q + 1$이다.
사회적 한계비용은 $SMC = MC + MEC = 4Q + 5$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외부비용을 무시한 균형이 $P = MC$에서 결정되고, 사회적으로 최적인 생산량은 외부비용까지 반영한 $P = SMC$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외부비용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각 기업의 공급은 $P = MC = 2Q + 4$이므로 $Q = \frac{P-4}{2}$이다. 따라서 시장공급은 $100 \times \frac{P-4}{2} = 50P - 200$이다.
2. 시장균형은 $50P - 200 = 1000 - 100P$이므로 $150P = 1200$, $P = 8$이다. 이때 총생산량은 $Q = 1000 - 100 \times 8 = 200$이다.
3. 사회적 최적에서는 각 기업이 $P = SMC = 4Q + 5$를 만족하므로 $Q = \frac{P-5}{4}$이다. 따라서 사회적 시장공급은 $100 \times \frac{P-5}{4} = 25P - 125$이다.
4. 사회적 최적 생산량은 $25P - 125 = 1000 - 100P$이므로 $125P = 1125$, $P = 9$이다. 이때 총생산량은 $Q = 1000 - 100 \times 9 = 100$이다.
5. 두 생산량의 차이는 $200 - 100 = 100$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50은 계산 결과와 맞지 않는다. 외부비용을 무시한 균형 총생산량은 200이고 사회적 최적 총생산량은 100이므로 차이는 100이다.
- 틀린 표현은 '차이가 50이다'이다. 올바르게는 '차이가 100이다'이다.

② O
- 외부비용을 무시한 시장균형 총생산량은 200, 사회적 최적 총생산량은 100이므로 차이는 100이다.
- 민간 한계비용과 사회적 한계비용을 각각 구분해 시장 전체 공급으로 합산하면 정답이 100으로 확정된다.

③ X
- 150은 사회적 최적 생산량을 너무 크게 잡았을 때 나오는 오답이다. 외부비용을 반영하면 공급이 더 줄어들어 사회적 최적 총생산량은 100이어야 한다.
- 틀린 표현은 '차이가 150이다'이다. 올바르게는 '차이가 100이다'이다.

④ X
- 200은 차이 자체가 아니라 외부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균형 총생산량을 그대로 적은 값이다. 문제는 두 생산량의 차이를 묻고 있으므로 200은 오답이다.
- 틀린 표현은 '차이가 200이다'이다. 올바르게는 '차이가 100이다'이다.

오답 포인트

외부비용이 주어졌다고 해서 EC 자체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한계외부비용 MEC를 구해 MC에 더해야 한다는 점이 함정이다. 또 개별기업 생산량과 시장 전체 생산량을 혼동하거나, 균형 생산량 200을 차이로 착각하면 ④ 같은 오답에 걸리게 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외부효과 계산형 문제는 먼저 민간 한계비용과 한계외부비용을 각각 미분으로 구한 뒤, 외부비용 미고려 균형은 $P = MC$, 사회적 최적은 $P = SMC$로 나누어 계산한다. 마지막에는 개별기업 값인지 시장 총량인지 반드시 다시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음의 외부효과가 있으면 사회적 한계비용은 민간 한계비용보다 크고, 따라서 사회적 최적 생산량은 시장균형 생산량보다 작다.

NoteBase

문 9. 다음은 A국의 소비함수에 대한 추정 결과이다. C_t와 Y_t는 각각 t기의 소비(조원)와 소득(조원)을 나타내며 안정적인 시계열이다. 괄호 안의 t통계량에 따르면 절편과 계수의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모형은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모두 만족하며, ε_t는 잔차이다)

arraylccccccc C_t = & 2.48 & + & 0.56 & Y_t & + & _t \ & (3.51) & & (4.04) & & & \ R^2 = 0.85 & & & & & & array

ㄱ. R^2에 따르면 소비의 총변동 중 85%가 소득 변수를 사용한 회귀모형으로 설명된다.

ㄴ. 소득의 계수 0.56은 한계소비성향이 0.56임을 의미한다.

ㄷ. 소득의 계수 0.56은 소득이 1% 상승할 때 소비가 0.56% 상승함을 의미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ㄴ, ㄷ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회귀식의 계수 해석에서 결정계수 R^2, 한계소비성향, 탄력성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결정계수 R^2는 종속변수의 총변동 가운데 회귀식이 설명하는 비율이다.
한계소비성향은 소득이 1단위 증가할 때 소비가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뜻하므로, 수준형 소비함수 $C = a + bY$에서 기울기 b가 한계소비성향이다.
탄력성은 독립변수가 1% 변할 때 종속변수가 몇 % 변하는지를 뜻하는 비율 개념이므로, 수준형 회귀식의 계수와 바로 같지 않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①은 ㄱ만 옳다고 본 조합이어서 틀리다. ㄱ은 맞지만 ㄴ도 맞으므로 틀린 표현은 'ㄱ만'이다. 올바르게는 ㄱ, ㄴ이 옳다.

② X
②는 ㄴ만 옳다고 본 조합이어서 틀리다. ㄴ은 맞지만 ㄱ도 맞으므로 틀린 표현은 'ㄴ만'이다. 올바르게는 ㄱ, ㄴ이 옳다.

③ O
ㄱ은 $R^2 = 0.85$이므로 소비의 총변동 중 85%가 소득을 설명변수로 한 회귀식으로 설명된다는 뜻에서 맞다. ㄴ은 수준형 소비함수의 소득계수 0.56이 소득 1조원 증가 시 소비가 0.56조원 증가함을 뜻하므로 한계소비성향 0.56으로 해석할 수 있다. ㄷ은 수준형 계수를 퍼센트 변화율로 해석한 것이어서 틀리므로, 옳은 것만 묶은 선택지는 ③이다.

④ X
④는 ㄴ은 맞지만 ㄷ을 포함하므로 틀리다. 틀린 표현은 'ㄷ'이다. 올바르게는 소득계수 0.56은 소득이 1% 증가할 때 소비가 0.56% 증가한다는 뜻이 아니라, 소득이 1단위 증가할 때 소비가 0.56단위 증가한다는 뜻이다.

오답 포인트

수준형 회귀식의 계수를 곧바로 탄력성으로 읽는 실수가 가장 흔하다. 이 문항의 함정은 0.56이라는 숫자를 보고 퍼센트 변화 해석으로 넘어가게 만드는 데 있다. 또 조합형 보기에서는 각 문장 자체의 O/X와 최종 조합의 O/X를 따로 점검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회귀식 해석 문제는 먼저 R^2는 설명력, 수준형 기울기는 한계변화, 로그형 계수만 탄력성으로 읽는다는 기준을 적용한다. 그다음 각 ㄱ, ㄴ, ㄷ의 진위를 먼저 확정하고 마지막에 조합 선택지를 고르면 된다.

암기 포인트

R^2는 설명비율, 수준형 계수는 단위당 증가분, 탄력성은 로그형에서의 % 반응이다.

NoteBase

문 10. 어느 마을의 어부 누구나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호수가 있다. 이 호수에서 잡을 수 있는 물고기의 수 Q와 어부의 수 N 사이에는 $Q = 70N - \frac{1}{2}N^2$의 관계가 성립한다. 한 어부가 일정 기간 동안 물고기를 잡는 데는 2,000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물고기의 가격은 마리당 100원이라고 가정한다. 어부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경쟁하면서 각자의 이윤을 극대화할 경우 어부의 수 N_0와 이 호수에서 잡을 수 있는 물고기의 수 Q_0는? 그리고 마을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수준에서의 어부의 수 N_1와 이 호수에서 잡을 수 있는 물고기의 수 Q_1는?

① $(N_0, Q_0, N_1, Q_1) = (100, 2{,}000, 50, 2{,}250)$

② $(N_0, Q_0, N_1, Q_1) = (100, 2{,}000, 70, 2{,}450)$

③ $(N_0, Q_0, N_1, Q_1) = (120, 1{,}200, 50, 2{,}250)$

④ $(N_0, Q_0, N_1, Q_1) = (120, 1{,}200, 70, 2{,}450)$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공유자원에서의 자유진입 균형과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어부 수를 각각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 총어획량은 $Q = 70N - \frac{1}{2}N^2$이다.
- 물고기 가격은 마리당 100원이다.
- 어부 1인의 비용은 2,000원이다.

구해야 할 값:
- 자유경쟁 균형의 N_0, Q_0
-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수준의 N_1, Q_1

주의할 조건:
- 자유진입 균형은 개별 어부의 이윤이 0이 되는 점이다.
- 효율적 수준은 마을 전체 이윤 $100Q - 2000N$을 극대화하는 점이다.

사용할 공식

개별 어부 1인의 이윤은 $\pi = 100 \cdot \frac{Q}{N} - 2000$이다.
전체 마을의 이윤은 $\Pi = 100Q - 2000N$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
자유경쟁에서는 각 어부가 진입을 반복하므로 개별 이윤이 0이 되는 점에서 균형이 형성된다. 효율적 수준은 개별 이윤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순이익이 가장 커지는 N을 찾아야 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자유경쟁 균형을 구한다.
$\frac{Q}{N} = \frac{70N - \frac{1}{2}N^2}{N} = 70 - \frac{1}{2}N$
따라서 어부 1인의 수입은 $100(70 - \frac{1}{2}N) = 7000 - 50N$이고, 이윤은
$\pi = 7000 - 50N - 2000 = 5000 - 50N$
이다. 자유진입 균형에서는 $\pi = 0$이므로
$5000 - 50N = 0 \Rightarrow N_0 = 100$
이다.
2. $N_0 = 100$을 총어획량 함수에 대입한다.
$Q_0 = 70 \cdot 100 - \frac{1}{2} \cdot 100^2 = 7000 - 5000 = 2000$
이다.
3. 효율적 수준을 구한다.
$\Pi = 100Q - 2000N = 100\left(70N - \frac{1}{2}N^2\right) - 2000N = 5000N - 50N^2$
이를 극대화하면
$\frac{d\Pi}{dN} = 5000 - 100N = 0 \Rightarrow N_1 = 50$
이다.
4. $N_1 = 50$을 총어획량 함수에 대입한다.
$Q_1 = 70 \cdot 50 - \frac{1}{2} \cdot 50^2 = 3500 - 1250 = 2250$
이다. 따라서 $(N_0, Q_0, N_1, Q_1) = (100, 2000, 50, 2250)$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계산 결과 $(N_0, Q_0, N_1, Q_1) = (100, 2000, 50, 2250)$이므로 맞는 선지이다.

② X
- $N_0 = 100, Q_0 = 2000$까지는 맞지만, 효율적 수준은 $N_1 = 70$이 아니라 $N_1 = 50$이다.
- 틀린 표현은 "$N_1 = 70, Q_1 = 2450$"이다. 올바르게는 "$N_1 = 50, Q_1 = 2250$"이다.
- $N_1 = 70$은 전체이윤 극대화 조건을 적용하지 않고 총어획량 함수의 기울기만 막연히 읽을 때 나올 수 있는 오답이다.

③ X
- 효율적 수준 $N_1 = 50, Q_1 = 2250$는 맞지만, 자유경쟁 균형은 $N_0 = 120$이 아니라 $N_0 = 100$이다.
- 틀린 표현은 "$N_0 = 120, Q_0 = 1200$"이다. 올바르게는 "$N_0 = 100, Q_0 = 2000$"이다.
- $N_0 = 120$은 개별 어부의 평균수입에서 비용 2000원을 빼는 단계를 누락하거나, 이윤 0 조건을 잘못 세울 때 나올 수 있는 값이다.

④ X
- 자유경쟁 균형과 효율적 수준을 모두 잘못 적은 선지이다.
- 틀린 표현은 "$N_0 = 120, Q_0 = 1200, N_1 = 70, Q_1 = 2450$"이다. 올바르게는 "
$N_0 = 100, Q_0 = 2000, N_1 = 50, Q_1 = 2250$"이다.
- 이 선지는 자유진입 균형의 0이윤 조건과 전체이윤 극대화 조건을 모두 혼동한 경우의 오답이다.

오답 포인트

이 문항의 함정은 자유경쟁 균형과 사회적 최적을 같은 기준으로 계산하는 데 있다. 자유경쟁 균형은 개별 어부의 평균수입이 비용과 같아지는 0이윤 조건으로 구하고, 효율적 수준은 전체 이윤을 극대화하는 조건으로 구해야 한다. 평균수입과 총이윤을 섞으면 N_0와 N_1를 뒤바꾸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공유자원 계산문제는 먼저 총산출 $Q(N)$를 1인당 산출 Q/N로 바꾸어 자유진입 균형을 구한 뒤, 별도로 전체이윤 함수를 만들어 사회적 최적을 구하면 된다. 자유진입은 0이윤, 효율성은 총이윤 극대화라는 기준을 분리하면 정답을 안정적으로 고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공유자원은 자유진입이면 0이윤까지 과잉진입하고, 효율적 수준은 그보다 적은 진입에서 결정된다.

NoteBase

문 11. 다음의 교환방정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MV = PY$ (단, M은 통화량, V는 화폐의 유통속도, P는 물가, Y는 실질 GDP이다)

① 통화량이 증가하면, 물가나 실질 GDP가 증가하거나 화폐유통속도가 하락해야 한다.

② V와 Y가 일정하다는 가정을 추가하면 화폐수량설이 도출된다.

③ V와 M이 일정할 때, 실질 GDP가 커지면 물가가 상승해야 한다.

④ V와 Y가 일정할 때, 인플레이션율과 통화증가율은 비례 관계에 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교환방정식 $MV = PY$와 그 성장률 해석에서 변수들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교환방정식은 통화량과 화폐유통속도의 곱이 명목 GDP와 같다는 항등식이다.
M과 V가 고정되면 PY가 고정되고, V와 Y가 고정되면 P는 M에 비례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통화량 M이 증가하면 좌변 MV가 커지므로 우변 PY가 커지거나, 그 증가를 상쇄하도록 V가 하락해야 한다. 선지의 내용은 교환방정식과 부합한다.

② O
V와 Y를 일정하다고 두면 $P = MV/Y$가 되어 물가 P는 통화량 M에 비례한다. 이 가정을 추가하면 고전적 화폐수량설이 도출된다.

③ X
틀린 부분은 '실질 GDP가 커지면 물가가 상승해야 한다'이다. M과 V가 일정하면 MV는 고정이므로 Y가 커질수록 P는 하락해야 한다. 올바르게는 '실질 GDP가 커지면 물가는 하락해야 한다'이다.

④ O
V와 Y가 일정하면 성장률 형태에서 $v = 0$, $y = 0$이므로 $\pi = m$이 된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율과 통화증가율은 같은 방향으로 1대1 대응 관계에 있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은 실질 GDP와 물가가 함께 오른다고 착각하게 만든다. 그러나 M과 V가 고정이면 명목지출 MV는 일정하므로 생산량 Y가 늘수록 물가 P는 반대로 내려간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어떤 변수가 고정인지 확인한 뒤 등식 $MV = PY$의 한쪽이 변하면 다른 쪽이 어떻게 맞춰져야 하는지 본다. M, V가 고정이면 P와 Y는 반대 방향이고, V, Y가 고정이면 M과 P는 같은 방향이다.

암기 포인트

M, V 고정이면 $Y\uparrow \Rightarrow P\downarrow$이고, V, Y 고정이면 $M\uparrow \Rightarrow P\uparrow$이다.

NoteBase

문 12. 어느 물고기 양식장이 수질오염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 이 양식장이 연간 x톤의 물고기를 양식할 때, 1톤을 더 양식하는 데 들어가는 한계비용은 $(1{,}000x + 7{,}000)$원이다. 동시에 1톤을 더 양식하는 데 따른 수질오염의 피해액, 즉 한계피해액은 $500x$원이다. 양식장의 물고기는 톤당 10,000원이라는 고정된 가격에 팔린다. 정부가 과다한 양식을 제한하기 위하여 피구세(Pigouvian tax)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사회적으로 최적수준의 톤당 세액은?

① 500원

② 1,000원

③ 1,500원

④ 2,000원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한계비용과 한계피해액을 더한 사회적 한계비용으로 효율 생산량을 구하고, 그 지점의 피구세를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물고기 가격은 10,000원, 한계비용은 $MC = 1{,}000x + 7{,}000$, 한계피해액은 $MD = 500x$이다.
구해야 할 값: 사회적으로 최적 수준을 유도하는 톤당 피구세이다.
주의할 조건: 피구세는 사적균형 생산량에서의 피해액이 아니라 사회적 최적 생산량에서의 한계피해액이다.

사용할 공식

사회적 한계비용은 $SMC = MC + MD$이다.
효율 생산량 x^*는 $P = SMC$에서 결정된다.
피구세는 $t = MD(x^*)$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 수질오염의 외부비용을 생산자가 부담하지 않으므로, 시장가격과 비교할 비용은 사적 한계비용이 아니라 외부피해를 포함한 사회적 한계비용이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사회적 한계비용은 $SMC = (1{,}000x + 7{,}000) + 500x = 1{,}500x + 7{,}000$이다.
2. 사회적 최적 생산량은 $10{,}000 = 1{,}500x + 7{,}000$을 풀어 $x^* = 2$이다.
3. 따라서 피구세는 $t = MD(2) = 500 \times 2 = 1{,}000$원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500원은 $MD = 500x$에서 계수 500만 읽거나 $x = 1$을 대입한 값이다. 피구세는 사회적 최적 생산량 $x^* = 2$에서 계산하므로 1,000원으로 고쳐야 한다.
② O: 사회적 최적 생산량 $x^* = 2$에서 한계피해액은 $500 \times 2 = 1{,}000$원이므로 옳다.
③ X: 1,500원은 무세금 사적균형 $10{,}000 = 1{,}000x + 7{,}000 \Rightarrow x = 3$에서의 한계피해액이다. 피구세는 사적균형이 아니라 사회적 최적 생산량에서의 한계피해액이므로 1,000원으로 고쳐야 한다.
④ X: 2,000원은 한계피해액을 과대평가한 값이다. 사회적 최적 생산량 $x^* = 2$에서의 한계피해액은 2,0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므로 틀리다.

오답 포인트

사적균형 생산량을 먼저 구한 뒤 그 지점의 한계피해액 1,500원을 피구세로 착각하기 쉽다. 피구세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을 유도하는 세금이므로, 반드시 $MC + MD$로 x^*를 구한 다음 그 지점의 MD를 읽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외부불경제 계산형은 먼저 MC와 MD를 더해 SMC를 만든다. 그다음 가격과 SMC를 같게 두어 효율 생산량을 구하고, 마지막에 그 생산량에서의 MD를 세액으로 읽으면 된다.

암기 포인트

피구세는 사회적 최적 생산량에서의 한계외부비용, 즉 $t = MEC(q^*)$이다.

NoteBase

문 13. 소비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레입슨(D. Laibson)에 따르면 소비자는 시간 비일관성(time inconsistency)을 보인다.

② 항상소득 가설에 의하면 평균소비성향은 현재소득 대비 항상소득의 비율에 의존한다.

③ 생애주기 가설에 의하면 전 생애에 걸쳐 소비흐름은 평탄하지만, 소득흐름은 위로 볼록한 모양을 갖는다.

④ 가계에 유동성제약이 존재하면 현재소득에 대한 현재소비의 의존도는 약화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소비 이론에서 시간비일관성, 항상소득가설, 생애주기가설, 유동성제약이 소비와 현재소득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레이브슨의 시간비일관성은 미래 계획을 세울 때와 실제 현재 선택을 할 때 할인구조가 달라져 계획과 행동이 어긋나는 현상이다.
항상소득가설은 소비가 일시적인 현재소득보다 장기적으로 기대하는 항상소득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생애주기가설은 개인이 전 생애 자원을 기준으로 소비를 평탄화하며, 소득은 근로기 중 높고 전후 시기에는 낮아 위로 불룩한 흐름을 가진다고 본다.
유동성제약은 미래소득이 있어도 현재 차입이 어려워 현재소득이 현재소비를 더 강하게 제약하는 상태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레이브슨의 준쌍곡선 할인 모형은 현재에 가까운 효용을 과대평가하는 현재편의를 설명한다. 그래서 장기계획상으로는 저축하려 해도 실제 현재가 되면 소비를 더 선택하는 시간비일관성이 나타난다.

② O
항상소득가설에서는 소비가 항상소득에 비례하므로 $C = kY^p$로 쓸 수 있다. 따라서 평균소비성향은 $APC = C/Y = k(Y^p/Y)$가 되어 현재소득 대비 항상소득의 비율에 의존한다.

③ O
생애주기가설은 젊을 때 차입하거나 저축이 적고, 근로기에는 소득이 높아 저축하며, 노년기에는 저축을 인출해 소비를 유지한다고 본다. 그래서 소비는 비교적 평탄하지만 소득은 중년기에 높아지는 위로 불룩한 형태가 된다.

④ X
틀린 부분은 "현재소득에 대한 현재소비의 의존도는 약화된다"이다. 실제로는 유동성제약이 있으면 미래소득을 담보로 충분히 차입할 수 없으므로 현재소비가 현재소득에 더 민감해져 의존도가 강화된다.

오답 포인트

항상소득가설과 생애주기가설만 기억하면 소비가 현재소득과 분리된다고 단순화하기 쉽다. 그러나 유동성제약이 들어오면 이 분리가 약해지고 오히려 현재소득의 영향이 커진다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소비이론 선지는 먼저 소비가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지 본다. 항상소득가설과 생애주기가설은 소비평탄화를, 시간비일관성은 현재편의를, 유동성제약은 현재소득 민감도 강화로 연결하면 선지 판단이 정리된다.

암기 포인트

항상소득·생애주기는 소비평탄화, 레이브슨은 시간비일관성, 유동성제약은 현재소득 의존 강화이다.

NoteBase

문 14. U자 형태의 평균비용곡선과 한계비용곡선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낮을 때에는 평균비용곡선이 음의 기울기를 갖게 된다.

② 평균비용곡선과 한계비용곡선이 서로 교차하는 점에서 평균비용은 최소가 된다.

③ 한계비용이 최소가 되는 점에서 평균비용곡선은 한계비용곡선을 아래에서 위로 교차하며 지나간다.

④ 평균비용이 최소가 되는 점보다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높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U자형 평균비용곡선과 한계비용곡선의 관계, 특히 한계비용이 평균비용을 어느 점에서 어떤 방향으로 교차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평균비용은 총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눈 단위당 비용이다. 생산량이 늘 때 평균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는 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큰지 작은지로 결정된다.
한계비용은 생산량을 1단위 더 늘릴 때 추가로 드는 비용이다. 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낮으면 평균비용을 끌어내리고, 높으면 평균비용을 끌어올린다.
핵심 관계는 평균비용의 최저점에서 한계비용이 평균비용과 같아지며, 그 점에서 한계비용곡선이 평균비용곡선을 아래에서 위로 교차한다는 점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낮으면 추가로 생산한 1단위의 비용이 기존 평균보다 낮다는 뜻이므로 평균비용은 하락한다. 따라서 평균비용곡선의 기울기는 음이 된다.

② O
평균비용이 내려가다가 올라서는 지점이 평균비용의 최저점이다. 이때 한계비용이 평균비용과 같아지므로 두 곡선은 그 점에서 교차한다.

③ X
틀린 부분은 "한계비용이 최소가 되는 점에서"와 "평균비용곡선은 한계비용곡선을 아래에서 위로 교차"라는 표현이다.
올바르게는 평균비용이 최소가 되는 점에서 한계비용곡선이 평균비용곡선을 아래에서 위로 교차한다.
한계비용의 최저점은 평균비용과의 교차점이 아니라 보통 그보다 먼저 나타난다.

④ O
평균비용이 최소가 되는 점보다 더 많이 생산하면 평균비용은 상승 구간에 들어간다. 이 구간에서는 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높아야 평균비용을 위로 끌어올릴 수 있으므로 선지는 옳다.

오답 포인트

한계비용의 최저점과 평균비용의 최저점을 같은 점으로 혼동하면 ③에 속기 쉽다. 출제자는 "한계비용이 최소"라는 말을 넣어 교차 지점을 바꿔치기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평균과 한계의 관계를 묻는 문제는 먼저 "MC<AC이면 AC 하락, MC>AC이면 AC 상승, MC=AC이면 AC 최저점"이라는 규칙으로 판단하면 된다. 교차 지점은 한계비용의 최저점이 아니라 평균비용의 최저점이다.

암기 포인트

한계비용은 평균비용을 끌어내리거나 끌어올리는 힘이며, 교차는 평균비용의 최저점에서 일어난다.

NoteBase

문 15. 환율결정이론 중 구매력평가(Purchasing Power Parity)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제에서 비교역재의 비중이 큰 나라 간의 환율을 설명하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다.

② 두 나라 화폐 간의 명목환율은 두 나라의 물가수준에 의해 결정된다고 설명한다.

③ 장기보다는 단기적인 환율의 움직임을 잘 예측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④ 동질적인 물건의 가격은 어디에서나 같아야 한다는 일물일가의 법칙을 국제시장에 적용한 것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구매력평가설의 핵심인 물가수준과 명목환율의 관계, 일물일가의 법칙, 그리고 장기와 단기의 설명력 차이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구매력평가설은 두 나라의 화폐가치와 명목환율이 각국의 물가수준에 의해 장기적으로 결정된다고 보는 이론이다.
일물일가의 법칙은 동일한 재화라면 환율을 고려한 가격이 국가 간에 같아져야 한다는 원리이다.
다만 비교역재의 비중, 운송비, 거래비용, 가격경직성 때문에 구매력평가설은 단기 환율보다 장기 환율을 더 잘 설명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비교역재는 국가 간 거래가 어려워 가격이 국제적으로 쉽게 일치하지 않으므로, 비교역재 비중이 큰 경제 사이에서는 구매력평가설의 설명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적합하지 않다는 설명은 맞다.

② O
구매력평가설은 두 나라의 명목환율이 결국 두 나라 물가수준의 비율로 결정된다고 본다. 물가가 더 빠르게 오르는 나라의 통화는 장기적으로 상대적 가치가 낮아진다고 설명한다.

③ X
틀린 부분은 '장기보다는 단기적인 환율의 움직임을 잘 예측한다'는 표현이다. 실제로는 구매력평가설이 단기 환율 변동보다 장기적인 환율의 추세를 더 잘 설명한다고 본다.

④ O
구매력평가설은 같은 재화의 가격이 국제적으로 같아져야 한다는 일물일가의 법칙을 국가 전체 물가수준으로 확장한 이론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은 환율이 물가로 결정된다는 문장을 보고 설명력이 항상 높다고 오해하면 잘못 고르기 쉽다. 구매력평가설의 대표적 한계는 단기 환율의 급격한 변동을 잘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구매력평가설 문제가 나오면 먼저 '물가수준으로 환율을 설명하는 이론인가'를 확인하고, 다음으로 '단기보다 장기 설명력이 높다'는 점을 바로 대조하면 판단이 정리된다. 비교역재 비중이 클수록 설명력이 약해진다는 점도 함께 연결된다.

암기 포인트

구매력평가설은 물가와 환율의 장기균형을 설명하고, 단기 환율 예측력은 낮다.

NoteBase

문 16. A국의 1인당 GDP(y), 1인당 물적자본스톡(k), 그리고 1인당 인적자본스톡(h)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1.54%, 0.84%, 0.63%이며, 총생산함수는 $y = zk^{\alpha}h^{1-\alpha}$이다. 이 경우 A국의 총요소생산성의 연평균 증가율은? (단, z는 총요소생산성이며, $\alpha = \frac{1}{3}$이다)

① 0.07%

② 0.70%

③ 0.84%

④ 1.09%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성장회계식 $g_y = g_z + \alpha g_k + (1-\alpha)g_h$를 이용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은 1인당 GDP 증가율 1.54%, 1인당 물적자본 증가율 0.84%, 1인당 인적자본 증가율 0.63%이다.
구해야 할 값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g_z이다.
주의할 조건은 $\alpha = 1/3$이므로 물적자본에는 1/3, 인적자본에는 2/3의 가중치를 곱해야 한다는 점이다.

사용할 공식

$g_z = g_y - \alpha g_k - (1-\alpha)g_h$
이 식을 쓰는 이유는 생산함수 $y = zk^{\alpha}h^{1-\alpha}$에서 산출 증가율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과 요소투입 증가율의 가중합으로 분해되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물적자본의 기여분은 $(1/3) \times 0.84 = 0.28$이다.
2. 인적자본의 기여분은 $(2/3) \times 0.63 = 0.42$이다.
3.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1.54 - 0.28 - 0.42 = 0.84$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0.07%는 $1.54 - (0.84 + 0.63) = 0.07$처럼 두 증가율을 가중치 없이 그대로 뺀 값이다. 올바르게는 물적자본에 1/3, 인적자본에 2/3를 곱한 뒤 차감하므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0.07%가 아니라 0.84%이다.
② X: 0.70%는 $1.54 - 0.84 = 0.70$처럼 물적자본 증가율만 빼고 인적자본 기여분 0.42를 누락한 값이다. 올바르게는 인적자본 기여분까지 함께 빼야 하므로 0.70%가 아니라 0.84%이다.
③ O: $1.54 - (1/3) \times 0.84 - (2/3) \times 0.63 = 1.54 - 0.28 - 0.42 = 0.84$이므로 정답이다.
④ X: 1.09%는 요소투입의 가중기여분 합계를 잘못 계산한 오답이다. 올바르게는 자본과 인적자본의 기여분 합계가 $0.28 + 0.42 = 0.70$이므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1.09%가 아니라 0.84%이다.

오답 포인트

함정은 자본 증가율과 인적자본 증가율을 단순히 더하거나 하나만 빼는 방식으로 총요소생산성을 계산하는 데 있다. 콥더글러스 생산함수에서는 각 요소증가율을 지수인 가중치만큼 반영한 뒤 남는 잔차가 총요소생산성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성장회계 문제는 먼저 $g_y = g_z + \alpha g_k + (1-\alpha) g_h$ 형태로 적고, 각 요소증가율에 자기 계수를 곱해 기여분을 구한 뒤 산출 증가율에서 차감하는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산출 증가율에서 가중된 요소투입 증가율을 뺀 잔차이다.

NoteBase

문 17. 총수요-총공급(AD-AS)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부가 이전지출 규모를 축소하면 총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② 기대물가의 상승은 총공급곡선을 상방으로 이동시킨다.

③ 팽창적 통화정책의 시행은 총수요곡선의 기울기를 가파르게 한다.

④ 균형국민소득이 완전고용국민소득보다 작다면 인플레이션갭이 발생하여 물가상승압력이 커진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항은 AD-AS 모형에서 총수요와 단기총공급을 이동시키는 요인, 그리고 균형국민소득과 완전고용국민소득의 비교에 따른 갭의 성격을 구분하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총수요는 물가수준이 주어질 때 재화·서비스에 대한 총지출 규모를 뜻하며, 재정지출·이전지출·통화량 변화로 곡선이 좌우로 이동한다.
단기총공급은 기업이 각 물가수준에서 공급하려는 산출량을 뜻하며, 기대물가 상승처럼 생산비 기대를 높이는 요인은 곡선을 상방, 즉 좌측으로 이동시킨다.
인플레이션갭은 균형국민소득이 완전고용국민소득보다 클 때 나타나고, 균형국민소득이 더 작으면 불황갭이 발생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이전지출 축소는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줄여 소비를 감소시키므로 총수요를 줄인다. 틀린 표현은 "우측으로 이동한다"이다. 올바르게는 "좌측으로 이동한다"이다.
② O. 기대물가가 상승하면 명목임금과 생산비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 같은 산출량에서도 더 높은 물가가 요구된다. 따라서 단기 총공급곡선은 상방, 즉 좌측으로 이동한다.
③ X. 팽창적 통화정책은 이자율 하락과 투자 증가를 통해 총수요곡선 자체를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틀린 표현은 "기울기를 가파르게 한다"이다. 올바르게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킨다"이다.
④ X. 균형국민소득이 완전고용국민소득보다 작으면 총수요 부족 상태이므로 불황갭이 발생한다. 틀린 표현은 "인플레이션갭이 발생하여 물가상승압력이 커진다"이다. 올바르게는 "불황갭이 발생하여 물가하락압력 또는 경기침체 압력이 나타난다"이다.

오답 포인트

이전지출 축소와 팽창적 통화정책을 모두 총수요의 이동요인으로 보지 않고 곡선의 기울기 변화로 오해하기 쉽다. 또 ④처럼 완전고용국민소득과의 대소관계를 거꾸로 읽으면 인플레이션갭과 불황갭을 반대로 판단하게 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재정·통화 변수는 먼저 AD를 좌우로 이동시키는지부터 본다. 기대물가나 생산비 기대는 SRAS 이동요인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균형국민소득과 완전고용국민소득을 비교해 $Y > Y_f$이면 인플레이션갭, $Y < Y_f$이면 불황갭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AD는 지출 변화로 좌우 이동하고, 기대물가 상승은 SRAS를 상방 이동시키며, $Y < Y_f$는 불황갭이다.

NoteBase

문 18. 어느 기업의 생산함수는 $Q = 2LK$이다. 단위당 임금과 단위당 자본비용이 각각 2원 및 3원으로 주어져 있다. 이 기업의 총 사업 자금이 60원으로 주어졌을 때, 노동의 최적 투입량은? (단, Q는 생산량, L은 노동투입량, K는 자본투입량이며, 두 투입요소 모두 가변투입요소이다)

① $L = 10$

② $L = 15$

③ $L = 20$

④ $L = 25$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예산제약 아래에서 $MPL/w = MPK/r$ 조건을 이용해 최적 노동투입량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생산함수 $Q = 2LK$, 임금 $w = 2$, 자본가격 $r = 3$, 총예산 60원이다.
구해야 할 값: 최적 노동투입량 L이다.
주의할 조건: 두 투입요소가 모두 가변투입요소이므로 한계생산 대비 요소가격이 같아지는 점에서 최적이 정해진다.

사용할 공식

최적 투입조건은 $MPL/w = MPK/r$이고, 예산식은 $2L + 3K = 60$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주어진 예산 안에서 산출량을 최대화하려면 마지막 1원을 각 요소에 썼을 때 늘어나는 생산량이 같아져야 하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생산함수 $Q = 2LK$에서 $MPL = \partial Q/\partial L = 2K$, $MPK = \partial Q/\partial K = 2L$이다.
2. 최적조건 $MPL/w = MPK/r$를 대입하면 $2K/2 = 2L/3$이므로 $K = 2L/3$이다.
3. 이를 예산식 $2L + 3K = 60$에 넣으면 $2L + 3(2L/3) = 60$이므로 $4L = 60$, 따라서 $L = 15$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계산 결과 최적 노동투입량은 15이므로 틀리다. $L = 10$이면 예산식상 $K = 40/3$이어야 하지만, 최적조건 $K = 2L/3$를 만족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최적 노동투입량이 10"이라는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최적 노동투입량은 15이다.

② O
최적조건과 예산식을 함께 풀면 $L = 15$가 나온다. 따라서 ②는 맞는 선택지이다.

③ X
$L = 20$이면 예산식상 $K = 20/3$이 되는데, 최적조건이 요구하는 $K = 2L/3 = 40/3$와 다르다. 틀린 표현은 "최적 노동투입량이 20"이라는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최적 노동투입량은 15이다.

④ X
$L = 25$이면 예산식상 $K = 10/3$만 남아 최적조건 $K = 2L/3 = 50/3$를 전혀 맞추지 못한다. 틀린 표현은 "최적 노동투입량이 25"라는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최적 노동투입량은 15이다.

오답 포인트

생산함수가 대칭적인 LK 형태라고 해서 $L = K$로 두면 틀리기 쉽다. 요소가격이 서로 다르므로 최적 수량비는 $L : K = 3 : 2$가 되며, 수량을 같게 맞추는 문제가 아니라 한계생산 대비 가격을 같게 맞추는 문제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두 가변투입요소와 예산제약이 함께 나오면 먼저 한계생산 MPL, MPK를 구하고 $MPL/w = MPK/r$로 최적 투입비율을 만든다. 그다음 그 비율을 예산식에 대입해 각 요소의 최적 투입량을 구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최적투입은 "한계생산 나누기 요소가격"을 같게 맞추는 점에서 결정된다. 이 문항에서는 $L : K = 3 : 2$, 따라서 $L = 15$이다.

NoteBase

문 19. 다음은 사과와 배의 수요함수를 추정한 식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과의 수요함수: $Q_A = 0.8 - 0.8P_A - 0.2P_B + 0.6I$
◯ 배의 수요함수: $Q_B = 1.1 - 1.3P_B - 0.25P_A + 0.7I$ (단, Q_A는 사과수요량, Q_B는 배수요량, P_A는 사과가격, P_B는 배가격, I는 소득을 나타낸다)

① 사과와 배는 보완재이다.

② 사과와 배는 모두 정상재이다.

③ 사과와 배 모두 수요법칙이 성립한다.

④ 사과와 배 모두 가격 및 소득과 무관한 수요량은 없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수요함수의 계수 부호와 상수항을 보고 보완재 여부, 정상재 여부, 수요법칙 성립, 자율수요 존재를 판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보완재는 한 재화의 가격이 오를 때 다른 재화의 수요가 줄어드는 재화이므로 교차가격계수가 음수이다.
정상재는 소득이 늘면 수요가 늘어나는 재화이므로 소득계수가 양수이다.
가격 및 소득과 무관한 수요량은 상수항으로 나타나는 자율수요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사과 수요함수에서 P_B의 계수는 -0.2, 배 수요함수에서 P_A의 계수는 -0.25이다. 한 재화의 가격이 오르면 다른 재화의 수요가 줄어드므로 사과와 배는 보완재이다.

② O
사과의 소득계수는 0.6, 배의 소득계수는 0.7로 모두 양수이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수요가 증가하므로 두 재화 모두 정상재이다.

③ O
사과의 자기가격계수는 -0.8, 배의 자기가격계수는 -1.3으로 모두 음수이다. 자기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감소하므로 두 재화 모두 수요법칙이 성립한다.

④ X
틀린 부분은 '사과와 배 모두 가격 및 소득과 무관한 수요량은 없다'이다. 사과 수요함수의 상수항은 0.8, 배 수요함수의 상수항은 1.1이므로 두 재화 모두 가격 및 소득과 무관한 수요량, 즉 자율수요가 있다. 올바르게는 '사과와 배 모두 자율수요가 있다'이다.

오답 포인트

④는 상수항을 놓치게 만드는 선지이다. 자기가격계수, 교차가격계수, 소득계수만 보고 판단을 끝내면 ④를 맞는 말처럼 보기 쉽지만, 상수항이 있으면 가격과 소득이 0이어도 존재하는 자율수요가 있다는 점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수요함수가 나오면 자기가격계수부터 보고 수요법칙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교차가격계수로 대체재·보완재를 구분하며, 소득계수로 정상재·열등재를 판별한다. 마지막으로 상수항이 있는지 확인해 자율수요 존재 여부를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교차가격계수 음수는 보완재, 소득계수 양수는 정상재, 상수항 존재는 자율수요 존재를 뜻한다.

NoteBase

문 20. 어느 나라가 kg당 10달러에 땅콩을 수입하며, 세계 가격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가정한다. 이 나라의 땅콩에 대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은 각각 $Q_d = 4{,}000 - 100P$ 및 $Q_s = 500 + 50P$로 표현된다. 수입을 500kg으로 제한하는 수입할당제를 시행할 때, 새로운 시장가격과 이때 발생하는 할당지대는? (단, Q_d는 수요량, Q_s는 공급량, P는 가격이다)

① 20달러, 4,000달러

② 15달러, 4,000달러

③ 20달러, 5,000달러

④ 15달러, 5,000달러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소국의 수입할당제에서 새 국내가격과 할당지대를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세계가격은 10달러, 수요곡선은 $Q_d = 4{,}000 - 100P$, 공급곡선은 $Q_s = 500 + 50P$이다.
구해야 할 값: 수입을 500kg으로 제한할 때의 새 시장가격과 할당지대이다.
주의할 조건: 이 나라는 소국이므로 세계가격 10달러는 변하지 않으며, 할당 후 총공급은 국내공급과 허용수입량의 합이다.

사용할 공식

새 균형에서는 Q_d = Q_s + 수입할당량이 성립한다. 할당지대는 (국내가격 - 세계가격) × 수입량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 수입할당제는 수입량을 500kg으로 고정하므로 총공급이 국내공급에 500kg을 더한 크기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수입할당 후 총공급은 $Q_s + 500 = 500 + 50P + 500 = 1{,}000 + 50P$이다.
2. 새 균형에서 $4{,}000 - 100P = 1{,}000 + 50P$이므로 $3{,}000 = 150P$, 따라서 $P = 20$달러이다.
3. 할당지대는 $(20 - 10) \times 500 = 5{,}000$달러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새 시장가격 20달러는 맞지만 할당지대 4,000달러는 틀리다.
- 틀린 표현은 "4,000달러"이며, 올바르게는 가격차 10달러에 허용수입량 500kg을 곱한 5,000달러이다.

② X
- 15달러에서는 수요가 2,500, 공급이 1,250이므로 수입수요는 1,250이다. 수입을 500kg으로 제한한 상황과 맞지 않는다.
- 틀린 표현은 "15달러, 4,000달러"이며, 올바르게는 "20달러, 5,000달러"이다.

③ O
- 새 균형가격은 20달러이고, 단위당 할당지대는 10달러이므로 총 할당지대는 5,000달러이다.
- 수입할당량 500kg이 정확히 반영된 계산 결과와 일치하므로 옳다.

④ X
- 할당지대 5,000달러는 맞지만 시장가격 15달러는 틀리다.
- 틀린 표현은 "15달러"이며, 올바르게는 새 시장가격이 20달러일 때만 수입수요가 500kg이 되어 할당조건이 충족된다.

오답 포인트

수입할당제에서는 세계가격 10달러를 그대로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공급에 할당량을 더한 총공급과 국내수요를 다시 같게 놓아야 한다. 15달러는 할당량 500kg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4,000달러는 가격차나 수입량을 잘못 곱했을 때 나오는 오답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소국의 수입할당 문제는 먼저 총공급을 Q_s + 할당량으로 바꾼 뒤 새 균형가격을 구하고, 그다음 (국내가격 - 세계가격) × 할당량으로 할당지대를 계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소국 수입할당의 핵심은 "새 가격은 $Q_d = Q_s$ + 할당량, 할당지대는 가격차 곱하기 할당량"이다.

NoteBase